

일주문



자비의 쌀 나눔
청담종합사회복지관장 혜성 스님은 9월 27일 오후 7시 청담복지관에서 지역 무의탁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결식아동 200가정에 각각 20kg씩의 쌀을 전달한다.



재가화엄학림 초청 강연
생명평화타발승려단장 도법 스님은 9월 30일 오후 2시 30분 광주 자비신행회 2층 강당에서 '재가화엄학림 초청 특별강연'을 한다. (062)234-0090



범종불사 회향 및 산사음악회
고창 선운사 주지 범어 스님은 9월 30일 오전 11시 선운사에서 범종불사 회향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63)561-1422



저출산 고령화 사회 준비 걷기대회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은 9월 3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걷기대회를 실시한다.



46회 풍경소리 음악회 개최
광주 증심사 주지 진화 스님은 9월 23일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풍물놀이패 굴림 등이 출연하는 '46번째 풍경소리 음악회'를 개최했다.



'장보고 선단과 해양불교' 세미나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9월 27일 오전 10시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건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장보고 선단과 해양 불교' 주제 세미나를 연다.



'생명생태주의' 주제 세미나
사단법인 보리 김재일 이사장은 9월 29일 오전 10시 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생명생태주의의 시각에서 본 방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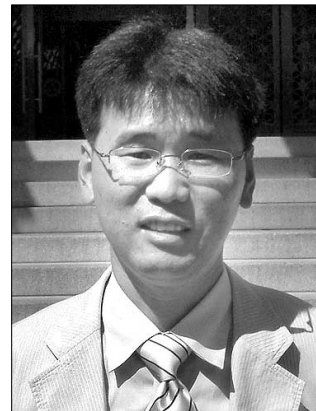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판화전
목판화가 강행복씨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강행복 목판화전'을 연다.

인사
불교방송 국장 △보도국장 선성신 △기술영상 국장 구기범 △총무국장 최찬기 / 팀장 △경영기획실 총괄기획팀장 박원식 △경영기획실 방송심의팀장 이선희 △편성제작국 편성제작팀장 김성준 △편성제작국 포교제작팀장 전승환 △편성제작국 아나운서팀장 이현정 △보도국 정치외교팀장 강동훈 △보도국 경제산업팀장 윤용근 △보도국 사회문화팀장 박관우 △기술영상국 라디오팀장 강유규 △기술영상국 영상팀장 신창현 △기술영상국 인터넷방송팀장 김병래 △총무국 총무팀장 신법식 △총무국 광고팀장 안훈 △총무국 사업팀장 박상필
울산불교방송 실무추진단 △울산불교방송설립실무추진단장 박시하 △울산불교방송설립실무추진단 실무위원 구대서

“종무행정 체계 갖추면 도심포교 효과도 만점”

‘종무행정론’ 펴낸 조기룡 박사



분해 예산의 원칙과 종류, 과정을 기술했다.

조 박사는 “원활한 종무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종교조직으로서 불교교단의 존립을 위해 필수요소인 전법교화 즉 포교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일선 사찰의 스님과 종무원은 물론 학제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종무행정론” 말미에는 포교의 의미에서 포교방법론, 법회관리 방법까지 수록돼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체계적인 종무행정을 통한 도심포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미개척분야인 종무행정을 10년간 연구해온 조기룡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사진)가 불교계 최초로 종무행정서를 발간했다.
동국대 출판부에서 발행한 <종무행정론>은 조 박사가 조계종 포교원에 5년간 근무하며 직접 실무도 경험한 만큼, 종무행정이 확연히 보여 현장에서 실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융화하고 있다.
“이제는 사찰도 주먹구구식 운영은 안 됩니다.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미래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선 사찰의 운영이 가정의 살림살이와 다를바 없다고 강조한 조 박사는 “사찰도 종무행정을 조직, 재무, 인사로 분류해 체계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이 책에서 종무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론 부분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특히 종무행정 조직이론과 종무행정조직의 원리, 특성을 설명한 후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조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신도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또 출가종무원, 재가종무원, 신도로 구분해 관리방안을 제시했으며, 종단예산과 사찰예산으로 구

조계종, 동국대·대불련 학생 50명에 장학금

조계종립대학인 동국대 학생과 대학생 불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종무원장 장학금 수여식이 9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성적과 봉사점수, 가정형편, 조계종 사찰 신도 여부를 고려해 서울캠퍼스 25명, 경주캠퍼스 15명,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10명 등 50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난해와 달리 장학금 지급 대상을 동국대 불교대학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학과의 3, 4학년으로 폭을 넓혔다.

종무원장 지관 스님은 지사를 통해 “공부할 때 여건이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로 공부해야 성공부”라고 격려했다.

학생대표로 장학금을 받은 이연희 학생(서울캠퍼스 선학과 3학년·사진)은 “소중한 장학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다. 열심히 공부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포교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우리 춤 읽는 코드 화쟁사상서 찾았죠”

‘한국 춤의 코드와 해석’ 발간한 김지원 박사



을 열고 있는 것이죠. 불교를 반영한 한국 춤은 일심의 미학을 지향합니다. 이상과 현실, 일상과 성스런 세계는 틀이 아니라 하나이기에 나와 너, 주와 객, 성과 속의 대립과 갈등이 춤을 통해 하나로 이루는 겁니다.”

기호학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 민족의 춤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보다 간결하면서 명확한 무보(舞譜) 작업을 가능케 한 것이 김씨가 무용계에 내놓은 결실로 요약된다.

한양대에서 무용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씨는 한양대와 청운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서울 서대문문화회관에서 개인 공연도 열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lim@buddhapia.com

한국적 코드로 한국을 읽는 것이 어쩌서 어려운 일일까? 서양의 잣대에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린 탓이다. 우리의 문화를 읽는 ‘눈금’을 서양의 잣대에서 찾는 한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탐구하고 규명하지 못한다.
한국의 춤을 한국의 눈금으로 읽으려는 시도, 그 속에는 당연히 불교 의식무를 읽고 해석하는 코드도 포함된다.
연구하는 무용가 김지원(32·사진)씨는 불교 의식무를 포함한 한국 춤의 기본 코드를 ‘화쟁사상(和諍思想)’에서 찾았다.
김씨는 최근 발간한 <한국춤의 코드와 해석>을 통해 한국 춤을 ‘한국 춤의 패러다임’으로 보려는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기호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국 춤을 분석하면서 서도 서양식 2분법에 얽매이지 않고 ‘삼진박’에 기초한 지극히 한국적인 코드를 적용한데서 김씨의 천착은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우리 춤에는 5천년 역사와 문화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재된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김씨는 한국 춤의 형태와 정신을 기호학의 기표와 기의에 대입 하고 동양의 삼재(천지인) 사상이나 풍류도 음양오행 사상은 물론 일심의 가르침을 두루 대입해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 기호학적인 접근을 통해 김씨는 ‘흥’과 ‘풀어냄’ ‘근원으로서의 회귀’ 등 한국 춤에 흐르는 정신을 두루 밝혀냈다.
“불교 의식무를 관통하는 정신은 화쟁사상입니다. 물로의 갈라섬이 아닌 아우름의 가르침이 녹아 있기에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는 영원히 소통의 길

제15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주영은은 9월 22일 서울 안암동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강당에서 제15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박상준씨에게 역경상을, 한기남씨에게 예술상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월운(동국역경원장)·종법(중앙승가대 총장) 스님과 주영은 이사장 등 100여명이 동참, 축하했다.

북녘수해지원 물자 환송식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상임대표 현지·원호사 주지)는 9월 18일 광주 금남로 ‘민주의 종’ 광장에서 북녘수해지원 물자 환송식을 갖고 수도권, 시멘트, 집퍼 등 4500여만원 상당의 물자를 북에 보냈다. 이 물품은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남북수해동포돕기 운동본부를 결성해 모은 것이다.

경운사, 홍천교도소 자장면 보시



인천 경운사는 9월 19일 홍천교도소에서 수행자들과 교정 직원 600여명에게 자장면을 보시했다. 이날 수행자들은 자장면을 먹은 뒤 주지 보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연 스님은 “10여 년간 홍천교도소에 상담차 다녔는데 이번엔 수행자들이 자장면을 맛있게 먹어 기쁘다”고 밝혔다.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범법을 통해 처녀총각 인연 맺어주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 동안의 범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 난다.
인생은 나와 인연과 연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하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문의 및 구입안내 : 온라인채널 여시아론 02)737-0695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관광과 방생을 한국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